

정확한 통계파악 구역별 전담제가 강점



모든 직원들이 1등지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나를 우리로 승화시키자」는 목표아래 업무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주지부이다. 서울 서고속버스로는 약4시간 30분의 거리인 이곳의 사령탑은 金化基지부장으로 지부장이하 모든 직원이 연고지배치의 방침과 시책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내 중심가인 금남로3가의 카톨릭센터 4층에 자리잡고 있는 광주지부의 직원수는 지부장외에 점검과 4명, 업무과 4명, 사무보조원 1명등 10명이 모두이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다른 지부와 마찬가지. 이렇게 어려워하면서도 평균 95%선의 계약율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광주지부가 4월말 현재 파악하고 있는 특수건물은 소유자별로 2만1천8백65건(점검단위 7백56건)이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대상물건은 4백83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아파트만 총 1만9천3백21세대(점검단위 1백36건)로 93.6%의 높은 부보율을 시현하고 있다.

점검단위로 본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율은 지난 5월말현재 94.7%로 연평균 13~16%의 신규물건 증가를 함께 계산하지 않으면 96%의 높은 부보율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올해로 7년째 광주지부에 몸담고 있는 지부장이 85년도 시무식에서 밝힌 지부운영방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직할시 승격을 예상하여 제반 업무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어 대비해야 하며 둘째, 가스보험의 과학적 업무체계확립과 80%이상의 부보율 확보 셋째, 소화설비의 할인확대와 점검의 공익성을 대외로 널리 홍보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매일 숫자놀음속에 살고 있으며 아침 출근때에 미리 그

날 처리해야 할 일들을 머리속에 그리고 나온다는 지부장의 집념과 열성 못지않게 전직원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1시간 정도의 조회를 갖는다.

이 조회에서 윤번제로 나선 사회자는 지난 주를 반성하고 금주를 계획함에 있어 과연 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간곡한 구령으로 3분간의 명상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는 훈시, 정신교육, 지난 주 업무평가, 금주 업무계획 개선, 건의사항, 자유대화, 공지사항 순으로 조회가 진행된다.

때로는 업무동력과 질책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유대화를 통해 파안대소하면서 한주일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인력이 달라다보니 광주시 전체를 4개구로 쪼개어 구별 전담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으며 그나마 현재 1개구는 인원이 모자라서 전담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한다. 구별 전담제란 말하자면 그 구역안의 모든 특수건물, 가스보험 대상에 대해 점검은 물론 신규물건 발굴, 계약에 이르기까지 일관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특수성이 고려된 업무능력의 극대화방안이며 모든 지부에 한결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만능의 제도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별 전담제 역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스보험을 취급하게 된 후 어떤 날은 여직원 혼자서(나중에는 다른 구역전담자가 도와주었다고 함) 하루동안 45건을 울면서 처리해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으며 각종 공문처리, 보안, 정확, 새마을업무등 점검과 보험업무외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미룰 수 없고 자칫하면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광주시부에서는 매일 거수실적, 계약상황, 점검단위, 소유자단위, 옥내판매장, 가스보험 업소별 내용 등이 구역별, 개인별로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별, 지역별, 물건별 그래프가 빠짐없이 그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파악하고 갖는데서 광주시부의 강점이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야만 주문과 협의의 측면지원이 가능하며 인력의 균형적 활용도

어렵사리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부의 올해 거수목표액은 신규물건을 포함해서 모두 8억4천만원. 단위부서로서는 최고인 62억원에 비하면 그래도 목표액이 적은 편이나 가장 규모가 작은 전주시부에 비하면 인구·면적·업무량이 거의 3배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연고지배치로 대상파악, 계약유지 면에서 부분적인 이득을 보고 있으나 일을 너무 잘 하니까 직원이 모자라더라도 보충해주지 않는다거나 별 문제가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광주시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광주시부는 6개지부 중에서 위임사무비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그만큼 결실도 거두고 있다.

광주시부의 아파트 일괄부보(단체계약)율은 지난 4월 말 현재 95% 선에 이르며 올연말까지는 이를 100% 선에 접근시킬 계획으로 있다.

기본부터 잘 다져진데다 위임사무비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설득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인구 90만명에 격일제로 수도물이 급수되고 있는 광주시에서 대소사고가 단 한건도 없이 1위고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시부에는 벌써 7~8년째 효도금고가 운영되어오고 있다.

경로효친사상에 뿌리를 두고 직원 모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가는 이 효도금고는 집안어른을 모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역과 지부의 특성에 알맞는 지부장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金化基지부장은 현재 광주시 새마을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소방행정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어 대외활동을 다져가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부는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누구나 모든 사안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일체감을 키워가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인간의 능력이 무한이라고 하지만 직원들로 부터 반발심이 생길 정도로 인력수급에 균형이 깨지거나 1위 고수의 노력을 사주지 않을 때 누구나 중심을 잡고 일하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이제 서서히 한계점을 의식하게 된다는 지부장의 고충 어린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